

『捷解新語』의 이유표현*

— 「ほどに」와 「により」를 중심으로—

朴 喜 南**

(e-mail : djllphn@dju.kr)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1. 모달리티와 관련성 |
| 2. 「이유표현」의 출현형식 | 3.2. 「ほどに」와 「により」 |
| 2.1. 『捷解新語』 | 3.3. とも와 「ても」 |
| 2.2. 『天草平家物語』·『大蔵虎明本狂言』 | 3.4. ほどに와 「によつて」 |
| 3. 『첩해신어』의 이유표현 | 4. 맺음말 |

キーワード : 첩해신어(Syokkaisingo), 모달리티(Modality), 접속조사(The Conjunctive Particles), 이유문(Reason to Sentence), 종속절(A Clause)

1. 머리말

현대일본어에서 「から」와 「ので」 등의 접속조사가 이유의 조건절을 구성하고 있다. 일본의 中世語에서는 사회의 발전과 복잡화는 언어표현에도 다양화가 요구되어 새로운 이유 조건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已然形+ば」와 「ほどに」, 「さかいに」 등 形式名詞+格助詞형태와 「によつて」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갔다. 『捷解新語』가 쓰여진 무로마찌 말기에서 에도시대는 일본어사에서 「근세어」로 들어가는 시기로 특히 언어의 변화가 대단히 심하였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捷解新語』의 개수에는 이와 같은 일본어 변화에 응하여

* 이 논문은 2015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대전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행하여 진 것으로 『捷解新語』의 「改修本」과 「重刊本」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법적 특징의 하나로 ‘개수에 나타나는 접속조사의 변화현상’을 들 수 있다.

『捷解新語』의 「原刊本」에서 이유표현에 242례가 나타나는 등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ほどに」는 「改修本」과 「重刊本」에서는 세력이 점차로 약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이에 반하여 「改修本」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により」의 사용량이 증대하여 「ほどに」에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 | | |
|-----------------------------------|-----------|
| a. その様に好い日和を逢わしられた <u>ほどに</u> 、 | (原, 六14ウ) |
| b. かやう好いひよりに御あいなされま <u>しにより</u> 、 | (改, 六21) |
| c. ケ様の好日和に御あわなされま <u>したにより</u> 、 | (重, 六19) |

본고는 『捷解新語』의 이유표현에 사용되는 「ほどに」와 「により」를 중심으로 종속절의 출현형식을 살펴보고 그것을 계량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통하여 이유표현을 구성하는 접속조사별 모달리티성을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이유표현의 변화와 모달리티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捷解新語』의 개수에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의 검토를 통하여 『捷解新語』이유표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捷解新語』의 대화체로 쓰여져 있는 卷1~卷9를 대상으로 분석을 행하였으며 일본 중세의 대표적 구어자료인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捷解新語』(原刊本 1676刊, 改修本 1748刊, 重刊改修本 1781刊)는 조선과 일본관리들의 교섭시 대화와 조선사절단의 방일시에 양국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쓰여진 조선의 「일본어학습서」이다. 『捷解新語』의 저자인 康遇聖은 임진왜란(1592)시에 일본에 납치당하여 10여년간 억류되었으며, 귀국 후 사역원 訳官으로 근무하며 사역원 倭学학생들의 일본어 교육을 위하여 日本語教科書を 편찬하게 되었다. 『捷解新語』는 당시의 구어로서 왜관에 거류하는 일본인 접대와 통신사를 수행한 3차에 걸친 渡日時の 대화를 모아서 편찬한 실용성 풍부한 일본어교재이다.

『捷解新語』는 일본어 변화에 따라서 제1차 개수(改修本)와 제2차 개수(重刊改修本)가 행하여졌으며 『捷解新語』가 성립된 시기는 일본어사에 있어서 그 변화가 가장 심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捷解新語』의 개수에는 이와 같

은 일본어 사정이 반영되었으리라 짐작되며, 『改修捷解新語』의 「凡例」에는 당시 ‘일본어의 변화가 심하였다’는 사실과 「原刊本」이 ‘이와 같은 일본어의 변화에 의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통역관에 의한 개수는 내용적으로 「原刊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약 100년간의 일본어 변화를 대조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당시의 일본어 변화양상을 비교·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다).

2. 「이유표현」의 출현형식

일본근세어로의 이행시기는 언어의 변화가 대단히 심하였으며, 접속조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속조사의 출현으로 인하여 접속조사가 대체되어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접속조사의 변화현상에는 접속조사 간에 의미적 동질성과 함께 문법적 범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일본어에 있어서도 원인·이유의 접속조사로 사용되는 「から」와 「ので」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²⁾으로 알려져 있다. 「-から節」에는 「-ので節」에 출현하기 어려운 「う·よう·ま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주관적인 표현」으로 구분하여 이유표현에 있어서 기능과 용법에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 a. 太郎は知らないので、ただ立っているばかりだ。
- b. 早く行かなくていいでしょうから、ゆっくりしてください。

2.1. 『捷解新語』(原刊本 1676, 改修本1748, 重刊改修本1781刊)

구어체로 쓰여진 『捷解新語』를 자료로 하여 「ほどに」와 「によつて」, 「により」등 접속조사별로 나타나는 출현형식과 사용실태를 밝히고 사용량에 대한 빈도를 계량적으로 조사하여 이들 이유표현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大友信一(1968) 「外国資料中国·朝鮮」 『季刊文学·語学』
2) 岩崎卓(1995) 「ノデとカラ」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くろしお出版, pp.506-509.

1) 「ほどに」

『捷解新語』에서 이유표현을 구성하는 접속조사로는 「ほどに」와 「て」, 「ゆえ」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原刊本」에서는 「ほどに」가 그 사용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a. 手前の面上には、酒氣一切御座らんほどに、様体が足らわしられて御座る。
(原, 三16)
- b. その様に好い日和を逢わしられた程に、
(原, 六14ウ)
- c. 今度いとられましても礼にはなりますまいほどに、
(改, 三10)

<表1> 「ほどに」 · 「により」

	ほどに	により
原刊本	242	
改修本	121	56
重刊本	77	43

「原刊本」에서 이유표현에 다용되었던 「ほどに」는 「改修本」부터 사용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1>에서와 같이 일본어사의 근세어에서 이유표현에 널리 사용되었던 「ほどに」는 「原刊本」에서 242례가 나타나는 등 대단히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改修本」과 「重刊本」에서는 세력이 점차로 약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改修本」부터 이유표현에 새롭게 나타나 사용된 「により」가 점차로 「ほどに」에 대신하여 쓰여지게 된 것이다.

- a. その様に好い日和を逢わしられた程に、
(原, 六14ウ)
- b. かやう好いひよりに御あいなされましにより、
(改, 六21)
- c. ケ様の好日和に御あわなされましたにより、
(重, 六19)
- a. 振舞の為様も御座るほどに、
(原, 八10)
- b. ごきやうおおがござるけなほどに、
(改, 八14ウ)
- c. 御響応が御座ると申まするにより、
(重, 八12)

「ほどに」 출현형식에는 희망, 단정, 추측, 의지표현 등 다양한 표현에 접속하여 중세어(『天草平家物語』·『大蔵虎明本狂言集』)에서와 같은 종속절의 출현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2) 「により」

『捷解新語』의 이유표현에 「개수본」부터 사용되었던 「により」는 「ほどに」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중세어 이후, 「ほどに」 사용량이 대단히 많았던 관계로 「改修本」과 「重刊本」에 있어서도 그 사용례를 많이 볼 수 있으나,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により」의 출현은 대부분이 「原刊本」에서 「ほどに」로 사용되었으나 「改修本」과 「重刊本」에서 「により」로 대체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 『捷解新語』의 이유표현에 「ほどに」가 「により」로 변화 및 대체되어 가는 현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a. 夜にいりましたにより, まつ御酒ひとつあがりませい。 (改, 一26)
- b. それは油断はいたしませんにより, まづこんにちはいわうてのきてござる。 (改, 六6)
- c. 今日寛と坐らしやれましても礼には成りますまいにより, (重, 三10)

『捷解新語』에는 중세어 『天草平家物語』와 『大蔵虎明本狂言集』에서 사용되었던 「によつて」의 예는 보이지 않으나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종속절의 출현형태에 있어서 「により」는 「によつて」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추측·의지(「う, よう」나 부정의지(「まい」) 등의 표현이 나타나게 된 점이다. 그 밖의 출현형식으로 존경에 「る·らる」, 과거와 완료 「た·たり」, 부정표현에 「ない·ぬ·ん·ず」, 鄭重에 「ござる·まらする·まする·おちやる」 등이 종속절에 나타나고 있다.

<表2> 「ほどに」·「により」

条件節	文 献	出現 形式									總 計
		用言	尊敬	否定 過去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断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ホドニ	原刊本	48	25(10)	21(9)	47(19)		39(16)	26(11)	5(2)	31(12)	242
	改修本	17	3(2)	10(8)	17(14)		7(5)	36(30)	3(2)	27(22)	121
	重刊本	19	1(1)	5(6)	12(16)		4(5)	13(17)	2(2)	20(26)	77

ニヨリ	原刊本										
	改修本	8	4(7)	10(18)	8(14)		23(41)			3(5)	56
	重刊本	6	1(2)	9(21)	8(19)			12(28)	1(2)	6(14)	43

※ ()는 %

2.2. 『天草平家物語』 · 『大蔵虎明本狂言』

2.2.1. 『天草平家物語』 (1593年)

중세의 대표적 구어자료로서 알려져있는 『天草平家物語』에서 이유표현으로 주로 사용된 접속조사로는 고대어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已然形+ば」 형식과 함께 「ほどに」와 「によって」가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によって」가 변성하여 이유표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1) 「ほどに」

『天草平家物語』의 「ほどに」는 86例로 「によって」(162例)에 비하여 수량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출현형식에 있어서는 「によって」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ほどに」종속절의 출현형식은 「によって」에는 출현하지 않는 「う」, 「うず(る)」 등의 추측 및 의지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존경, 과거 표현 등 대부분의 출현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① 過去 · 完了

○ はや白髪がすこしあったほどに、今わさだめて白髪にこそあらうざることぢゃが、
(卷四 384, 5)

② 希望

○ 平家の由來が聞きたいほどに、あらあら略してを語りあれ。 (卷一 3, 10)

③ 否定

○ かないさうにもござないほどに、今わ川を渡らうずるでござるが、 (卷二 129, 5)

④ 鄭重

○ 平家の由來わ大略この分でござるほどに、どこでもこの物語にをいてわ、
(卷四 408, 14)

⑤ 推量・意志

- a. こなたもみごとあとをうたせられうほどに、重宝でござる。 (卷四 408, 17)
- b. 心もとなうござらうずるほどに、まづまかり上る。 (卷一 79, 16)

2) 「によって」

『天草平家物語』에 나타나는 「によって」는 존경 「るる・らるる」, 단정 「だ・ぢゃ・である」, 과거·완료 「た」, 부정 「ない・ぬ」, 과거부정 표현 「なんだ」, 정중표현 「ござる・まらする」가 사용되는 등 다양한 출현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ほどに」와 비교하면 추측·의지표현 등, 모달리티성이 높은 출현 형태로는 1例도 출현하지 않고 있다.

① 用言

- 平家に対し謀叛を起すによって、平家あつかわるれどもかなわず、 (卷三 201, 1)

② 尊敬・謙讓

- 天下を乱らさうずると企てらるるによって、いちいちに召しとつて尋ね沙汰いたさうずる。 (卷一 23, 5)

③ 断定

- 山川ぢゃによって、水がほどなう落ちたれば、 (卷三 163, 4)

④ 過去・完了

- 宮の御謀叛すでにあらわれさせられたによって、官人どもかただいまを迎いに參るほどに、 (卷二 108, 18)

⑤ 否定

- a. とかうの返事もせなんだによって、ともした女に尋ねて、さてわかうであったよと知った。 (卷二 98, 5)
- b. まだ快気つかまつらぬによって、やがても參らなんだと、 (卷四 375, 15)

⑥ 鄭重

- さがさがしい者でござったによって、院にも召し使われたが、 (卷三 179, 23)

『天草平家物語』에서는 과거·완료의 표현에 「たり」 이외에 「たり」에서 변화한 「た」가 사용되고 있으며 추측·의지표현에 「む」와 「むず」에서 변화한 「う」와 「うずる」, 희망은 「たし」에서 변화한 「たい」, 단정표현은 「である」와

「ちゃ」·「だ」 등 신구의 표현이 혼재하고 있어, 언어변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天草平家物語』를 자료로 출현형태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³⁾, 이유표현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접속조사 「ほどに」와 「によって」는 표현형식의 출현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표적인 이유표현으로 사용되었던 「によって」는 「ほどに」와는 달리 추측·의지나 부정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특징으로부터 이들 접속조사의 종속절에서는 「모달리티성」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2.2. 『大蔵虎明本狂言』(1642)

『大蔵虎明本狂言』은 室町時代부터 江戸時代 초기에 걸쳐서 당시의 언어 실태를 알 수 있는 구어자료로서 잘 알려져 있다⁴⁾.

1) 「ほどに」

이유의 조건표현에 『天草平家物語』에서 다용되었던 「已然形+ば」나 「よつて」(229例) 형태의 예문은 점차 줄어들고, 『虎明本狂言』에서는 「ほどに」(1592例)가 다용되고 있다.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天草平家物語』와 마찬가지로 추측·의지 표현 등 다양한 출현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존경표현 「やる」와 「めし」, 과거 「けれ」, 정중표현 「おじゃる」와 「候」, 부정의지 「まい」, 「まい」 등 당시 언어변화를 반영한 더욱 다양해진 표현형식을 보이고 있다.

① 尊敬

○ せん次第とおほせらるるほどに、さきへまいる。 (脇狂言之類 43, 8)

② 否定·過去否定

○ いまだ都を見物いたさぬ程に、罷のぼつて、 (出家座頭類 305, 1)

③ 過去·完了

○ くだびれた程に、さうめんを所望してくはふ。 (万集類 185, 4)

④ 断定

3) 『天草伊曾保物語』(1593)에 있어서도 「ほどに」 14例, 「よつて」 88例로 「よつて」가 다용되는 등, 같은 결과를 얻고 있다.

4) 池田広司·北原保雄(1983) 『大蔵虎明本狂言集の研究』上 本文編, 表現社

- 人ことにいそがしひものじや程に、さようにもぞんぜぬ。(女狂言之類 170, 8)
- ⑤ 否定推量・意志
- 少なりともくれられぬ事は有まひほどに、いざあれへ參つて申て見う。
(脇狂言之類 113, 8)
- ⑥ 推量・意志
- 久しひもので御ざらふほどに、たたせられひ。(女狂言之類 159, 17)

2) 「によって」

『天草平家物語』에서 이유표현에 가장 큰 세력 분포를 보였던 「によって」는 『虎明本狂言』에는 229例로 우선 그 세력의 약화가 눈에 띈다. 출현형식은 『天草平家物語』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1例도 보이지 않는 등 「ほどに」와는 출현형태에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 ① 否定・過去否定
- すこしの間もはなさぬによって、まいる事がならぬ。(万集類 231, 8)
- ② 過去・完了
- おそかったによって、ここなどのさまへうつた程に、(大名狂言類 170, 9)
- ③ 断定
- 人がほしがかる物じやによって、ゆだんがならぬ。(集狂言之類 137, 5)
- ④ 鄭重
- さひくに致すものでござるに依つて、かみげと申もからかさの事。
(大名狂言類 210, 5)

<表3> 「ほどに」 · 「によって」

文 献	条件節	出現 形式									總 計
		用 言	尊 敬	否 定	過 去 完 了	希 望	斷 定	鄭 重	否 定 推 測 意 志	推 測 意 志	
平家	ホドニ	33	10(12)	5(5)	9(10)	1(1)	17(20)	7(8)		4(5)	86
	ニヨツテ	39	7(4)	7(4)	96(60)		7(4)	8(5)			162
狂言	ホドニ	469	92(6)	184(12)	204(13)	12(0.7)	195(12)	225(14)	67(4)	144(9)	1592
	ニヨツテ	60	22(10)	55(24)	43(19)		20(9)	29(13)			229

※ ()는 %

일본 중세어를 나타내는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의 자료를 통하여 이유표현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ほどに」와 「によって」를 비교해 보면, 『天草平家物語』에 있어서는 「によって」사용이 가장 많은 등, 「ほどに」에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虎明本狂言』에서는 「ほどに」의 사용이 늘어나 그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알 수 있다. 「ほどに」는 『虎明本狂言』에 있어서 이유표현의 약 70%를 점할 정도로 다용되었으며, 「ほどに」와 「によって」를 합하면 전체 사용량의 80%로 넘어서 이유 조건표현에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량의 과다만이 아니라, 「ほどに」에 접속하는 술어부에는 모달리티성이 낮은 용언, 존경 표현에서부터 과거부정, 추측·의지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によって」는 부정추측·의지 표현이나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1例도 보이지 않고 있어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의 전체 예문에서 「ほどに」와는 출현 형태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 『捷解新語』의 이유표현

3.1. 모달리티와 관련성

접속조사는 일반적으로 ‘前節과 後節의 관계에 나타나는 陳述에 대한 화자의 인정’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일본어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から」와 「ので」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태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から)」과 「객관적인 표현(ので)」에 사용되어 기능과 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⁵⁾ 永野는 「から」와 「ので」의 사이에 의미·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용법의 특성 분석에 의하여 규명하였다. 推量, 見解, 意志, 命令, 依頼, 質問의 의미로서 「から」가 사용된 6가지의 예문을 제시하고 이 예문은 「から」를 「ので」로 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5) 国立国語研究所(1951) 『現代語の助詞・助動詞一用法と実例一』 国立国語研究所, p.175

「ので」: 原因・理由・根拠 등을 나타낸다. 前件과 後件이, 原因・結果, 또는 理由・歸結의 關係에 있는 것이 表現者에 의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사실을 나타내는 事態. 따라서 條件의 獨立性은 「から」보다 약하다.

「から」: 表現者가 前件과 後件의 原因・理由로서 措定하여 결합한 표현. 「ので」에 비하여 條件의 獨立性이 강하다.

<表4> 「から」·「ので」

	から	ので
永野	主觀的表現	客觀的表現
南不二男	C類	B類
岩崎	모달리티態度 根拠	
	事態 原因·理由	
益岡	判断 level	現象 level
모달리티性	+ (ウ·ヨウ マイ)	± (ウ·ヨウ 마이不可)

「から」와 「ので」에 관한 제연구의 결과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갖는 유사한 접속조사 사이에 용법과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모달리티의 차별화로 인한 이와 같은 의미와 용법의 차이로 인하여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から」와 「ので」의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과 주관적으로 표현되는 「から」와 「ので」가 포함된 종속절에는 의미적 차이와 함께 종속절에 나타나는 출현형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から節」에서는 「ので節」에서 출현하지 못하는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う·よう, まい, だろう」 등의 요소가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현대어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인 「から」와 「ので」는 <表4>와 같이, 모달리티의 차별화에 의한 문법적 형질과 의미적 차이를 보이며 공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미적으로 유사한 접속조사는 각각 「희망·단정·추측」 등의 출현형식으로 모달리티성분을 나타내며, 「から」와 「ので」에서와 같이 접속조사별로는 모달리티성의 정도에 응하여 출현하고 있다. 또한, 이들 유사한 접속조사의 치환에는 접속조사 사이에 의미적 동질성과 함께 차별적인 모달리티와 관련한 법칙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중세어나 근세어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5〉 출현형식 모달리티성

	客觀的		主觀的
	詞的		辞的
阪倉			
渡辺	1類(叙述)	2類	3類(陳述)
益岡	命題	二次的모달리티	一次的모달리티
仁田	言表事態	言表事態모달리티	發話·伝達모달리티
出現形式	レル·セル	ナイ·タ·ラシイ…	ウ·ヨウ·ダロウ·マイ
모달리티성	-	±	+

3.2. 「ほどに」와 「により」

3.2.1. 「により」

『捷解新語』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접속표현의 출현과 접속표현의 변화현상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접속표현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改修本」에서 56례가 사용되었던 「により」의 출현과 그 사용의 과다에 있다고 하겠다. 「により」는 일본중세어의 대표적 구어자료인 『天草平家物語』와 『大蔵虎明本狂言集』에서도 10여 예가 보일 뿐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접속표현이다. 에도시대에 들어서도 전기上方語나 에도어의 이유표현에 「ほどに」와 「によって」가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점으로부터 『捷解新語』의 「により」출현과 다용은 특별하게 보인다⁶⁾.

「ほどに」는 일본 근세어(原刊本)에 있어서도 이유표현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ほどに」는 「改修本」과 「重刊本」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점차로 「により」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原刊本」의 내용이 일본어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捷解新語』의 개수는 접속조사의 변화가 큰 특징의 하나로 이것은 일본의 언어변화를 개수에 있어서 반영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原刊本」에 「ほどに」로 사용되었던 표현은 「改修本」과 「重刊本」에 있어서는 「により」로 대체되어 「ほどに」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捷解新語』의 「により」사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濱田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により」의 사용에는 ‘조선어 간접현

6) 『첩해신어』와 明治시대의 『隣語大方』, 『交隣須知』에 이르기까지 조선자료에서는 「により」가 이유 표현에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으로 조선어 대역인 < - 니>와 결합하여 「により」의 이유조건절에 습관과 같이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다7).

<表6 > 「改修本」 이유표현의 한국어역

접속표현	한 국 어				총계
ほどに	- 하니까 (136)				136
により	- 하니까 (51)	-하매 (3)	-해서(1)	- 하는(1)	56
ゆえ	- 하기에 (19)	-하니까(13)	-하매(7)	-하느라(1)	40
から	-하니까 (7)	-하므로(3)	-하매(1)	-해야(1)	12

본고의 고찰 대상인 卷1~卷9 부분은 양국관리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점이나 「개수」에 있어서 통신사를 수행한 최학령 등이 일본인과 『捷解新語』의 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により」의 출현양은 적지만 『大蔵虎明本狂言集』 등에서 사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ほどに」의 韓国語訳을 조사(<表6>)한 바에 의하면, 모든 예문이 < - 니>로 표시되어 있어서 한국어역에서 「により」와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모달리티성과 관련하여 「により」는 「ほどに」와 출현형태가 대등한 것으로부터도 「により」만이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한국어< - 니>와 결합하였다는 주장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大友8)는 『捷解新語』에 대하여 “방언이라 할 만한 표현조차 없는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9).

조선자료의 이유표현에 「により」의 사용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일본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改修本」이 “문체적으로 고풍스럽고 문법적으로도 옛 것을 보존하고 있다”10)는 지적과 과다한 경어사용 등 「개수본」의 특징으로부터 살펴보면 당시 변성하였던 ‘武士言語’11)와 ‘한일관리의 대화체’라는 ‘문체적 특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濱田敦(1983) 「接続」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p.298.

8) 大友信一(1964) 「中国・朝鮮資料の語彙」 『中世の語彙』 p.306.

9) “成立事情からみれば、日本と朝鮮との仲介約になっている対馬の方言が、著しく反映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が、「まらする」を「まるする」と言っているのがそれかと思われるほかに、ほとんど見られず”.

10) 濱田敦(1983) 「接続」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p.293.

“文体的特徴から云えば、むしろ逆に改修本方がよい古めかしい、所為「さやうしかれば」的言語であて文法的要素においても古いものを保存している”.

11) 朴喜南(1991) 「『捷解新語』による敬語の構文論的研究」 岡大國文論稿 第19号.

3.2.2. 「により」의 모달리티성

「原刊本」에서 「ほどに」가 이유표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점으로부터 「重刊本」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예도 적지는 않지만 『捷解新語』에서는 점차로 「ほどに」의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대신하여 「により」가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捷解新語』의 「改修本」부터는 「ほどに」와 「により」가 병용되고 있음을 말하기보다 「ほどに」에서 「により」로 그 역할이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ほどに」와 「により」의 모달리티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ほどに」는 『天草平家物語』, 『虎明本狂言集』에서와 마찬가지로 『捷解新語』의 「原刊本」에서 「重刊本」에 걸쳐서 모달리티의 정도가 강한 모달리티 요소인 의지, 추측, 정중, 단정, 부정의 표현 등 모든 모달리티성분이 출현하고 있지만 「改修本」부터 나타나는 「により」에는 「によって」와는 달리 출현율은 떨어지지만 의지·추측 등, 모달리티성의 성격이 「ほどに」와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등 「によって」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表7〉 「によって」·「により」

文 献	条件節	出現 形態									總 計
		用言	尊敬	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断定	鄭重	否定推測 · 意志	推測 意志	
平家	ニヨッテ	39	7(4)	7(4)	96(60)		7(4)	8(5)			164
狂言	ニヨッテ	60	22(10)	55(24)	43(19)		20(9)	29(13)			229
捷解	改修 ニヨリ	8	4(7)	10(18)	8(14)		23(41)			3(5)	56
	重刊 ニヨリ	6	1(2)	9(21)	8(19)			12(28)	1(2)	6(14)	43

※ ()는 %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나는 「によって」와 『捷解新語』의 「改修本」이후에 출현하는 「により」를 비교해 보면 모달리티성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によって」의 경우, 모달리티의 정도가 강한 성분은 종속절의 출현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하여 「により」에는 「ほどに」와 같이 강하고 다양한 모달리티 성분이 출현하고 있다. 즉 「ほどに」와 「により」는 모달리티성에 있어서 같은 영역의 단계에 있으

나 「によって」와 「により」는 다른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모달리티성」은 접속조사의 변화현상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를 「ほどに」와 「によって」, 「により」의 관계로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ほどに」는 일본 중세어에서 「によって」와 함께 이유조건표현에 많이 사용되었다.

「ほどに」는 근세 전기에 이르기까지 변성하였으나 『捷解新語』의 「改修本」부터는 이유표현에 「により」가 「ほどに」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들을 모달리티성과 관련하여 비교하면, 「によって」는 객관적인 내용에서의 이유표현에 사용되었으며, 「ほどに」는 주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출현형태에 있어서도 「によって」는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た」에 후접하는 예문이 많아 모달리티성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ほどに」와 「によって」의 관계는 처음에 「ほどに」는 주관적인 표현에 사용되고 「によって」는 객관적인 표현에 사용되어 병용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점차로 「により」는 주관적인 표현에도 사용되면서 양자는 공존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とも」와 「ても」

『天草平家物語』에는 고대로부터 사용되었던 「とも」가 가정표현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 당시는 「とも」의 사용량이 62例로 26例에 불과한 「ても」와 비교하여 사용량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虎明本狂言集』에서는 「とも」136例, 「ても」126例로 가정표현에서 대등하게 사용되게 되었다.

『捷解新語』의 「原刊本」에 사용되는 「とも」와 「ても」는 『虎明本狂言』에 이어서, 병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表8>에서와 같이 점차로 「ても」의 사용례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이들 구어자료의 조사에 의해서 「ても」가 근세어에서 「とも」를 대신하여 가정조건에 쓰이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 | | |
|-----------------------------|-----------|
| a. 其方衆十日二十日逗留して戻るとも、 | (原, 三24) |
| b. おのおのとうかはつかとうりしてかえらしやれても、 | (改, 三32) |
| c. 各十日二十日逗留して歸らしやれても、 | (重, 三30ウ) |

일본중세어 가정표현에 새롭게 나타난 「ても」는 고대어로부터 사용되었던

12) 此島正年(1966) 『国語助詞の研究』 桜楓社, p.148.

「ども」와 함께 병용되면서 점차로 대등하게 사용되었다. 「ども」와 「ても」에 나타나는 출현 형태는 용언, 존경의 「るる, らるる」 등, 소재지향적 모달리티성분이 출현하여 같은 성격의 모달리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捷解新語』의 「改修本」부터는 병용되지 못하고 「ても」가 가정표현을 담당하도록 바뀌는 과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表8> 「ども」 · 「ても」

文 獻	条件節	出現形態									總 計
		用言	尊敬	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断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平家	トモ	27	13(21)	8(13)	7(11)			7(11)			62
	テモ	22	2(7)	1(3)				1(3)			26
狂言	トモ	70	4(3)	30(22)	26(19)		4(3)	1(0.7)			136
	テモ	121	4(3)					1(0.8)			126
原刊本	トモ	11	1(7)	2(14)							14
改修本		4	1(7)	6(43)			2(14)		1	14	
重刊本		2	2(25)	2(25)			2(25)			8	
原刊本	テモ	24	4(13)				2(7)				30
改修本		20	5(13)	1(3)			13(33)			39	
重刊本		12	8(29)	2(7)			6(21)			28	

※ ()는 %

3.4. 「ほどに」와 「によって」 (『天草平家物語』 · 『虎明本狂言』)

접속조사의 표현성은 주체적인 사실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종속절과 주절이 어떠한 관계로 접속하는가? 하는 접속적 관계개념을 나타내는 객체적 표현성분이다. 그러나 접속조사는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에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함으로써 접속조사별로는 모달리티성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ほどに」 「によって」를 모달리티와 관련지어서 비교해 보면, 「ほどに」와 「によって」는 「已然形+ば」와 함께 일본의 중세어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草平家物語』에서는 이유표현에 「によって」의 사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나, 『虎明本狂言』에서는 「ほどに」가 1592례가 출현하여 이유문의 표현으로 80%를 점하고 있는 등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によって」는 229례로 사용량이 두드러지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ほどに」와 「によって」의 모달리티성을 살펴보면 「ほどに」는 종속절에 있어서

출현하는 모달리티성분 중 가장 모달리티의 정도가 높은 <추측>, <의지>의 표현이 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によって」는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의 어느 쪽에서도 1예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ほどに」는 하나의 문에서 여러 개의 종속절이 출현하는 일본어 근세어문의 특성이 있는데 「ほどに」가 이끄는 종속절은 모달리티의 정도가 낮은 다른 접속조사가 이끄는 종속절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ほどに」나 「ども」와 같은 모달리티성이 높은 접속조사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주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절에는 종조사나 명령 등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 a. 橋の上の軍わ火の出るほどに、なつてござる、かないさうにもござないほどに、
(平家 卷二 129, 5)
- b. 時分もよう御ざる程に、ござれと云て、よぶでこい。
(狂言 女狂言之類 171, 17)

「ほどに」와 「によって」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모달리티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부터 양 접속조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화자가 의식하여 어휘를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ほどに」와 「によって」가 공존·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ほどに」와 「によって」와 같이 현대어의 이유표현에 사용되는 접속조사인 「から」와 「ので」의 의미·용법상의 차이를 양 접속조사 차이의 모달리티성의 차별화를 지적한 바 있는데 「から節」과 「ので節」의 차이는 사태에 대한 주관적 표현과 객관적 표현의 차이로서 표현의도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高山는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³⁾.

ノデ節とカラ節との違いは事態に即して客觀的に述べあげるのか、話し手の思ひいれをこめて主觀的に述べあげるのかという表現意圖の違いとして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

<中略>

これは<推定>と<推量>、あるいは<疑似モダリティ>と<眞のモダリティ>として把握されてきた意味領域の境界線を表している。

13) 高山善行(1997) 「日本語モダリティの史的研究」 大阪大学博士論文 p.49.

즉, 같은 의미를 갖는 접속조사가 병행하여 사용되기 위하여는 모달리티의 정도가 달라야 하며 유사한 이유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화자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구별하고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捷解新語』의 이유조건표현에 다용되었던 「ほどに」와 「により」를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접속조사 간 교체라는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모달리티와 접속조사의 변화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ほどに」와 「により」는 모달리티 정도가 같은 주관적인 표현에 사용되면서 양자는 병행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により」로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현대어의 이유표현인 「から」와 「ので」, 『天草平家物語』, 『虎明本狂言』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유표현인 「ほどに」와 「よって」, 가정표현에 있어서 「とも」와 「ても」를 조사해 본 결과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속조사에 있어서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출현형식은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접속조사의 변화에는 의미적 동질성과 함께 「모달리티」와 관련한 문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속조사의 사용에 있어서 화자는 표현하려는 소재에 따라 이들 접속조사의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표현의도의 차이에 맞추어 접속조사를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捷解新語』의 개수에 나타나는 이유표현에는 이와 같은 문법적 현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조선자료의 이유표현과 「により」의 사용에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池田広司·北原保雄(1983) 『大蔵虎明本狂言集の研究 上 本文編』, 表現社
 岩崎卓(1995) 「ノデとカラ」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くろしお出版, pp.506-509.

- 大友信一(1964) 「中国・朝鮮資料の語彙」 『中世の語彙』 p.306
_____(1968) 「外国資料中国・朝鮮」 『季刊文学・語学』
『現代語の助詞・助動詞一用法と実例一』 (1951)国立国語研究所, p.175.
小林賢次(1996) 『日本語条件表現史の研究』 ひつじ書房, p.251.
此島正年(1966) 『国語助詞の研究』 桜楓社, pp.143-148.
近藤泰弘(2003) 『日本語記述文法の理論』 ひつじ書房, pp.430-464.
鈴木一彦・林巨樹 (1985) 『研究資料日本文法⑤』 明治書院, pp.144-168.
高山善行(1997) 「従属節におけるムード形式の実態について」 『日本語学』 pp.6-12.
高山善行(1997) 「日本語モダリティの史的研究」 大阪大学博士論文, p.49.
永野賢(1952) 「「から」と「ので」はどちらがうか」 『国語と国文学』 29卷 2号
仁田義雄・益岡隆志(1989) 『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野田尚史 (1989) 「真性モダリティをもたない文」 『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 pp.143-151.
浜田敦(1970)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岩波書店, p.293.
朴喜南(1991) 「『捷解新語』による敬語の構文論的研究」 岡大国文論稿, 第19号
南不二男 (1974) 『現代日本語の構造』 大修館書店, pp.128-129.
安田章 (1996) 『国語史の中世』 三省堂, pp.369-372.

논문 투고 일자 : 2016.02.29.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要旨＞

『捷解新語』理由表現の考察
－「ほどに」と「により」を中心に－

朴喜南

日本語において接続助詞は鎌倉、室町時代に至って、その使用が急激に多くなった。このような複文の発達による文の明確化は社会現象とも深い関わりがあると考えられる。本稿は『捷解新語』の改修の際、現れる接続助詞の変化をモダリティと関連づけて考察した。『捷解新語』の改修本と重刊本に現れる、理由を表す接続助詞「ほどに」と「により」の変化現象を調べ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接続助詞の置換現象には、接続助詞の間の意味的な同質性ととも「モダリティ性」と関わる文法的な法則性が存在することが確認できたと思われる。これは「ので」と「から」で見られるように、日本語に共通する言語現象で、『捷解新語』の改修には、このような文法的現象が守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A Study of Reason in Sentences 『Syokkaisingo』
－Centering around 「hodoni」 「niyotte」－

Park, Hee-Nam

Such difference in the conjunctive particles also show the clear regularities in terms of historical change. That is, those conjunctive particles which don't differentiate each other in their usage and meaning, cannot coexist resulting in the difference of those not in use while the conjunctive particles that differentiate each other in the usage and the meaning, can coexist thus, each assuming the role of expressing the condition of the different parts. Such difference in the meaning and the usage depends on the modality. In comparison with contemporary Japanese language, we can conclude that the above-mentioned grammatical rules are common phenomena in the history of Japanese language.